

루카이저의 모성시: 서정시와 공공성*

박 선 아

단독 / 한국외국어대학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미국의 현대시인 유리얼 루카이저의 모성시를 통해 여성의 경험이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 모성성을 재정의하려는 시도이다. 현대적 관점에서 모성성은 어머니와 아이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여성적 경험으로 정의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 때 루카이저의 모성시는 그러한 모성성이 사회의 공적 가치와 맞는 점을 부각시키며 서정시의 확장성 또한 담지한다. 전쟁을 위시한 세계질서의 격변과 혼란이 벌어졌던 시기를 살았던 루카이저에게 이 세계는 자신과 아이가 살아가고 있고 또 살아가게 될 공간으로서 더없이 예민하게 주시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공적인 담론 속에서 어머니됨을 논의하는 일은 그에게 필연적인 시 쓰기의 몫이었다. 따라서 어머니됨의 환경이라는 것은 그 공적 영역 속에서 어머니로서의 자신이 어떤 자리에 위치하는 지에 대한 지속적인 탐색을 불러왔다. 그러나 이것이 일견 자기창조적인 성격을 띠고 볼 수 있다면, 이 탐색 자체를 시화한 모성시는 한편으로 지속적인 사회 참여를 시화하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시의 서정적 주체를 나라는 사적 공간에서 공적 공간으로 확대시킨 루카이저의 작품을 읽으면서 이 논문은 개별 여성의 모성 경험이 여성의 보편적 경험으로 어떻게 확장되는지 그것이 지금 시대 우리의 시 읽기에 어떤 의미가

* 이 글은 본인의 박사논문 『어머니됨의 경험과 모성수행의 시학: 현대 미국시의 모성시 연구』 (*The Experience of Motherhood, Poetics of Mothering: A Study on Motherhood Poems in Modern American Poetry*)에 바탕을 두어 작성되었다.

있는지를 살핀다.

주제어 : 서정시, 공공성, 유리얼 루카이저, 모성시, 모성성

1. 들어가며

로즈(Jacqueline Rose)는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의 말을 빌려 어머니가 되는 일의 의미를 한 문장으로 제시한 바 있다. “어머니가 된다는 것,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이 방인을 환영하는 일이고, 그리하여 모성수행을 ‘우리과 가까운 누군가의, 그리고 우리 자신의 낯섦과 가장 강렬하게 접촉시키는 형태’로 만든다”(139-40). 로즈의 이 말은 모성경험이 갖는 다각적 의미를 내포한다는 면에서 깊이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우선 로즈는 어머니가 되는 일에 대해 말하면서 어머니에 ‘대해’ 쓰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수행하는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강조한다. 뿐만 아니라 오래도록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져 온 어머니 개인의 경험이 타인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사회적인 면모를 가졌다고 말하고, 아이라는 타자를 맞이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개인적이면서도 사회적인 그 모성경험이 어머니 자신에게는 “가장 강렬한 형태의 접촉”으로 이해된다고도 말한다. 어머니 자신의 목소리가 필요함을 요구하고, 그 목소리가 늘 공적 영역과 맞닿아 있되, 그 작업이 언제나 다방면으로 강렬한 감응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로즈의 이 말은 모성과 공공성의 관계를 살펴볼 본 논문의 목적과 가장 깊이 맞닿아있다.

현대미국시사에서 이러한 작업을 수행했던 시인으로는 유리얼 루카이저(Muriel Rukeyser, 1913-1980)가 있다. 1913년에 태어나 20세기를 가로지르며 활동했던 시인은 공적 영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여성의 경험으로서의 모성을 꾸준히 탐색해왔다는 점에서 모성시 전통을 구축하고 있지만, 정작 모성시학이라는 담론 안에서 논의된 경우가 극히 적다. 그러나 일련의 루카이저 시들은 여성 고유의 경험으로서의 모성

과 어머니 화자가 보여주는 공동체 지향 정서 및 어머니존재들이 전쟁이나 사회운동과 같은 공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정치적 공간을 읽어낼 수 있기에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시들은 화자 자신은 물론 제 아이가 세계와 어떻게 관계하는지에 대해 골몰하는 방식으로 탐색된다. 그러니 모성은 그에게 시를 추동하는 힘이자 자신이 세계와 관계하는 방법이 탐색되는, 그리하여 타인과 연결되고자 하는 모성적 열망이 펼쳐지는 장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루카이저의 모성시라 할 수 있을 법한 시들을 차례로 읽은 뒤, 모성경험이 공적 영역과 어떻게 관계하고, 종래에는 서정시라는 장르 담론에 어떤 균열을 일으키고 또 어떤 성취를 이루는지를 살피며 마무리하고자 한다.

우선 루카이저가 논의되었던 기존의 비평공간을 살필 필요가 있겠다. 루카이저는 좌파 지식인이란 정치적 입장과 반전 활동가로서의 작품들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1935년 첫 시집인 『비행이론』(*Theory of Flight*)으로 ‘예일 젊은 시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하게 이름을 알린 뒤, 『미국 1번 국도』(*U.S.1*, 1938)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미국의 국가정체성 자체에 초점을 맞춘 시 세계를 보여주며 휘트먼(Walt Whitman)에 뒤이어 미국적 비전을 시화한다는 평을 받는 문단의 신예로 떠올랐다(Barnat 95; Rudnitsky 237; Kennedy-Epstein 1161; Ostriker 73). 하지만 순탄하게 문단의 조명을 받은 것은 아니었으니 이후 루카이저가 미국 내외의 굵직한 사건들을 좇으면서 당대의 예술사조였던 모더니즘이나 신비평의 지향가치와 비껴선 사회참여적 시세계를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루카이저는 각종 불의를 목격할 때면 거침없이 찾아 나섰고¹⁾, 나치즘을 보이콧하기 위한 대항운동으로서의 ‘인민의 올림피아드’(People’s Olympiad)를 취재하고자 스페인까지 갔다가 내전의 발발을 목도하곤 원치 않는 국외자가 되기도 했다. 공산주의적 비전과 불화를 겪으며 한쪽에서는 변절자로 내몰렸고²⁾ 평생을 아이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은 싱글맘으로 살기도 했다. 루카이저 삶의 궤적을 쫓다보면 참여적인 태도를 지닌 그의 관심사나 시세계가 드넓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그의 전작을 살피다 보면 시를 필두로 한 그의 예술적 실천에 유독 모성에 대한 관심이 짙게 깔려있음을 찾을 수 있다. 일례로 그의 시학을 망라한

저서 『시의 생애』 (*The Life of Poetry*, 1949)에서 루카이저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결정적인 경험의 영향력이 시를 통해 올 때, 살아있는 우리가 어느 때나 다가서고 또 들어서는 갈림길 중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좀 더 우리 자신의 시대를 살게 되며 좀 더 원초적인 상태가 된다. 원초적이라는 것은 유미주의자들이 말하는 용어로서의 의미가 아니다. 보다 복잡하고 생생하고 어두운 의미들로 꽉 들어찬, 발견을 강조하는 일이다. 아이를 낳는 여성의 경험이 원초적인 것처럼 말이다.
(*Life* 172)

시 「어린시절로부터의 시」 (“Poem Out of Childhood”)에서 “경험을 들이쉬고, 시를 내쉬라”(Collected 3)고 말한 것처럼, 루카이저는 개인의 경험이 시화되는 과정을 주요한 시적 원리로 이해했다. 루카이저는 이러한 시적 작업을 통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원초적”인 상태를 모더니즘 시기 유미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미학적인 담론 속에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복잡하고 생생하고 어두운 의미들로 꽉 들어찬” 것들을 끊임없이 “발견”하려 하는 계속적으로 실제적인 태도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때 루카이저는 시학의 핵심을 가리키는 이 “발견”에의 강조를 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경험에 빚댄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여성의 모성경험을 “복잡하고 생생하고 어두운 의미들로 꽉 들어찬” 것들을 “발견”하는 과정과도 같다는 것을 함축하고 있다는 것이다.

“복잡하고 생생하고 어두운 의미들로 꽉 들어찬” 것은 바꾸어 말하면 간략하게 정의될 수 없는 것, 죽지 않은 것, 그리고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미들의 웅성임을 가리킨다. 그렇다면 그 탐색을 모성경험에 은유한 루카이저의 모성은 어떤 것일까. 그의 에세이 「많은 음들」 (“Many Keys”)은 이에 대한 힌트를 제공한다. 미국문학사 내에서 여성의 글쓰기가 갖게 된 특징을 숙고한 본 에세이는 애초에 『더 네이션』 (*The Nation*) 지에 투고했으나 반려되었는데,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글로 사장되어 있다가 최근 키너헌(Eric Keenaghan)에 의해 재조명되었다. 에세이의 원제는 「유리여자」 (“The Glass Woman”)로 스티븐스(Wallace Stevens)의 시 「오보에 옆에서」 (“Aside on the Oboe”)에 등장하는 “유리인간”을 여성으로 재특정해 쓴다. 이 때 루카이저는

“외부영향이 없는” “유리인간”이 존재한다는 스티븐스의 말과는 달리 “유리여자같은 건 없다”고 되받아친다³⁾. 여성 시인에게 있어 “작품은 언제나 유물적인 경험이 갖는 젠더화된 구체성에 기반하고 있기에, 투명성과 초월성이 불가능”(Keenaghan 189)하기 때문이다. 즉,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안전한 상태로 늘 투명하게 존재할 수 있는 인간됨의 조건이 여성에게는 불가능한 것이고, 여성은 언제나 여성에게 특징적인 구체적 경험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인데, 「많은 음들」은 그러한 조건 속에서 서야 여성의 시쓰기가 수행된다고 말한다.

키너헌은 이때 발현되는 여성의 시쓰기가 “받아들이기, 반응하기, 반복하기”(193)와 주요하게 관계 맺는다고 정리한다. 그리고 루카이저는 이러한 특징들이 구현되는 한 환경으로서 자녀양육을 통과하는 어머니됨의 경험을 든다,

완성된 에세이에서 루카이저는 양육이란 하나의 환경으로서, 주요한 “고비”라고 적는다. 누군가의 삶을 계속해서 재방문하고 재작업해야 하는 일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루카이저는 첫 아이를 낳은 이후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어머니는 반복적인 자기 재창조 모드에 몰두해야 한다고도 기록한다. (Keenaghan 193)

“받아들이기, 반응하기, 반복하기”는 타인 없이는 불가능한 일들이다. 루카이저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수행되어야 하는 이 일들이 여성의 시쓰기 환경으로 작동한다고 말하며 이 과정이 태어난 아이를 받아들이고, 그에 반응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어머니됨의 경험과 유사하다고 본다. 이에 덧붙여 이 작업이 곧 “자기창조”적인 성격을 띤다고도 말한다. 즉, 아이와 관계를 맺는 경험이 동시에 어머니 자신에게도 영향을 주며 쌍방으로 작동한다는 것인데, 루카이저의 말대로라면 어머니됨은 여성이기에 저절로 수행할 수 있는 타고난 성질이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를 맺는 경험 속에서 새롭게 발견되는 것이다. 또한 그 과정은 “복잡하고 생생하고 어두운 의미들로 꽉 들어찬” 것에 대한 고유한 탐색이다.

이 작업은 탐색의 대상을 속속들이 밝혀내기보다 탐색하는 과정 그 자체에 목표

를 둔다. 타인과의 관계맺기가 모성경험의 핵심이면서 동시에 여성의 시쓰기와 공명한다는 점에서 갠더(Catherine Gander)는 루카이저의 시학을 “관계적 미학”(relational aesthetics, 1221)이라고, 에르조그(Anne Herzog)는 “관계시학”(relational poetics, 32)이라고 이름 붙인다. 타인에게 응답함으로써 형성되는 힘을 주요한 시적 동력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키너헌은 “반응의 시학”(responsive poetics, 193)이라고도 명명했다. 아렌트(Hannah Arendt)가 말했듯 “인간이 태어나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 각각이 새로운 시작이자, 어느 정도는 세계를 새롭게 시작해낸다는 사실”(466)⁴⁾은 결국 모성을 경험하는 일이 새로운 세계와 관계를 맺고 그에 반응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재창조하게 되는 쌍방의 작업임을 가리킨다. 그러니 모성경험을 시화한다는 것은 시인이 세계와 긴밀히 관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시쓰기의 양상을 떨 수밖에 없다.

2. 모성경험과 서정공간

사실 다수의 루카이저 초기시에서 “아이”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날들에 대한 막연한 상징으로 기능하는 경향을 보인다. 일례로 『비행이론』에 실린 「아이와 엄마」(“Child and Mother”)에서 아이는 “우리는 견디고, 이 아이들은 따르고, 모든 것이 나아질 수 있을 것이다”(Collected 55)와 같이 “우리”로 포섭되지 않고 분리되어 있는 미래적 존재처럼 그려진다. 아이는 『미국 1번 국도』에 실린 연작시 「여성과 상징들」(“Woman and Emblems”)의 「생일」(“The Birthday”)에서처럼 “대기에 첫 길을 내”(Collected 131)는 개척자로 등장하거나 『눈 앞의 야수』(Beast in View, 1944)에 실린 연작시 「전선에 보내는 편지」(“Letter to the Front”)에서처럼 막연한 평화의 담지자로 소환되기도 한다. 아이를 대상으로만 보았을 때 생겨나는 이러한 낙관적인 태도들은 모성경험이 녹아 있는 서정 속에서는 좀 더 섬세하게 기술된다. 어머니됨의 경험이 나와 타자의 관계 속에서 서로가 재창조되는 지극히 사회적인 관계임을 염두에 두었을 때, 아이는 미래가 투사된 상징이 아니라 어머니존재가 지금 현재 관계 맺

고 있는 구체적인 타자로 그려지기 때문이다.

아이를 막연한 타자로 설정하거나 유토피아적인 대상으로 그리지 않고 아이와 어머니존재가 맺는 관계에 보다 몰두하여 그려내는 작업은 루카이저의 연작시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아홉 편의 시」 (“Nine Poems for the Unborn Child”)에 구현되어 있다. 이 시에서 시인은 아이와 어머니존재가 맺는 관계를 보다 섬세하게 그려낸다. 시는 루카이저가 아이를 출산한 1947년 직후 출간된 『초록물결』(*The Green Wave*, 1948)에 실려 있는데, 각각의 소네트가 한 여성이 아이와 맺게 되는 경험을 풀어내는 구성이다. 루카이저 자신의 자전적 경험을 일부 술회하며 어머니됨에 대해 쓰는 맨 첫 번째 소네트에서는 제한된 공간 안에 거하는 화자가 공간 밖의 세계를 막연한 어둠으로 상상한다. 외부와의 교류 없이 존재하는 화자는 “줄 것이 없었고, 취할 것은 늘 적었다”(Collected 280)고 말하기도 한다. 하지만 두 번째 소네트에서 의사로 추정되는 “그들”로부터 “아이가 있습니다”(Collected 280)란 말을 들은 듣게 된 이후, 화자는 “상(像, images)들의 원천이 내 땅을 돌파했다”(Collected 280)며 아(我)와 비아(非我)를 가르던 기존 세계의 경계에 의문을 제기한다. 보다 본격적으로 아이와 관계를 맺게 되는 어머니됨의 서정을 풀어내기 시작하려는 것이다.

어머니됨의 서정은 시인이 자신이 경험한 바를 기술할 새로운 시적 언어를 획득했기 때문에 가능해진다. 시 「가면으로서의 시」 (“The Poem as Mask”)에는 의사에게 “아이가 있습니다”라고 들었을 때의 상황이 그려져 있는데, 이 대목은 루카이저의 실제 경험과 관련이 있다. 1947년 9월 25일, 루카이저는 제왕절개로 아들을 출산한다. 당시 루카이저의 많은 동료들은 그에게 임신중단을 추천하거나 입양 보낼 것을 권유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당시 루카이저는 미혼이었고 상대 남성이 기혼이었기 때문이다. 당시는(오늘날도 그러하지만) 여성 홀로 아이를 키울 일이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쉽지 않았을 때였음에도, 루카이저는 둘 다 선택하지 않고 결국은 아이를 낳고 홀로 기른다. 그 선택에 대해 루카이저는 다음과 같이 쓴다.

산은 없고, 신도 없지만, 기억이 있다
내 찢겨진 삶의 기억, 잠든 채 활짝 벌어진 나,

의사들 사이에서 내 곁에 누운 구조된 아이,
그리고 그 위대한 눈들로부터 구조된 말의 기억.

There is no mountain, there is no god, there is memory
of my torn life, myself split open in sleep, the rescued child
beside me among the doctors, and a word
of rescue from the great eyes. (*Collected* 413)

화자는 제왕절개로 인해 마취된 자신을 “잠든 채 활짝 벌어진 나”라 표현하고, 자신의 선택으로 “구조된 아이”를 제 옆에 눕힌다. 이 때 화자는 그 아이가 구조됨과 동시에 “말” 또한 구조되었다고 쓴다. 그리고 그 “구조된 말”은 시인으로 하여금 “가면은 이제 그만! 신화는 이제 그만!”(*Collected* 413)이라 다짐하게 하는데, 신화에서처럼 시를 선사하는 뮤즈가 있고 그렇게 쓰게 되는 시는 제 언어가 아닌 “가면”을 쓴 “말”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각성은 아이를 만난 뒤, “조각들이 저마다의 음악을 지니고 내 안에 들어서”(*Collected* 413)는 모성적 경험으로 인해 가능해진다. 완전하지 않은 “조각”들,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온전하다 여겨지지 않는 선택들, 조건들, 존재들이 시인의 경험 속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음악”을 지니고 시인에게 들어서 고유의 서정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 「가면으로서의 시」는 아이를 낳았던 제 경험에 대한 시이면서 동시에 과거의 시쓰기 관념을 벗어나 자신의 언어를 획득해가는 어머니 서정주체에 대한 시이기도 하다.

아이를 구조하는 일과 말을 구조하는 일을 나란히 둬으로써 어머니화자라는 서정주체의 언어를 획득한 이에게 아이는 더 이상 막연하게 그려지는 대상이 아니다.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아홉 편의 시」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아이는 화자인 나와 적극적으로 교류하며 결국은 변화를 이끌어내는 실재적 경험으로 그려진다.

이제 관념들은 모두 동물로 바뀌어
성큼성큼 걷고 쾌활하다. 이제 모든 상들은
일새들로 변하고, 모든 일새의 장막들도

강으로 흘러들어가고 있다. 나는 강과
 사랑에 빠졌다. 이 변화하는 물이 목소리를 싣는다.
 모든 아이들을 싣는다. 모든 기쁨을 싣는다.
 물이 다독였던 바람이 이 물결 위로 따스함을 옮긴다.
 아이가 이 물결 가운데서 바뀌고 움직인다.

Now the ideas all change to animals
 Loping and gay, now all the images
 Transform to leaves, now all these screens of leaves
 Are flowing into rivers, I am in love
 With rivers, these changing waters carry voices,
 Carry all children: carry all delight.
 The water-soothed winds move warm above these waves.
 The child changes and moves among these waves. (*Collected* 281)

아이라는 실체와 만나고 나서 화자가 마주하는 세계는 모든 “관념”과 “상”들이 살아 움직이게 되는 곳이다. 그것들이 실체를 갖고 “성큼성큼 걷”는 곳이다. 화자는 이 생생한 것들이 살아 흐르는 “강”과 “사랑에 빠졌다”고 쓰는데, 이 강 위에서는 “목소리”와 “아이들”이, 그리고 “기쁨”이 흐른다. 모든 게 동시에 흐르는 그 곳을 환영하면서, 시는 어머니가 아이를 맞았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변화를 그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아이라는 타인과의 만남이 다방면의 변화를 추동한다는 점 또한 드러낸다.

시 「귀환」 (“The Return”)에서는 그 변화의 폭이 좀 더 확장적으로 그려지는데, 시에서 아이는 어머니화자에게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거기에 응답하려는 화자에게는 변화가 생겨난다.

그리고 아이가 계속해서 질문했다.

내 몸으로 여행을 시작한 관념이
 돌아왔고, 나는 하나의 천성에 대해 알았기에

하나를 잊고,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

고통이 대답이 될 때까지
모든 숙련자들이 질문자들이 될 때까지
모든 피해자들이 다시 행위자가 될 때까지
모든 기원들이 빛 속에서 부서질 때까지.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질문을 던진다.

And the child went on asking his questions.

The Idea journeying into my body
returned, and I knew the nature of One,
and could forget One, and turn to the child,
and whole could turn to the world again.

Until the pain turns into answers
And all the masters become askers
And all the victims again doers
And all the sources break in light.

The child goes alive, asking his questions. (*Collected* 341-2)

세상에 처음 온 아이는 모든 것이 새롭기 때문에 계속해서 화자에게 질문을 던진다. 이 때 어머니는 아이에게 응답해야 할 몫을 지니게 되는데, 시인은 그 과정을 “하나를 잊고, 아이에게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표현한다. 여기서 “하나”란 주체가 온전히 단일한 존재라고 믿을 때의 그 “하나”를 가리킨다. 예컨대 헤겔(G. W. F. Hegel)이 그의 『미학 강의』 (*Aesthetics: Lectures on Fine Arts*)에서 시인이라 보았던 존재가 그렇다. 서정시를 가장 이상적인 시의 장르로 꼽았던 헤겔은 시인이 특정한 상황에 놓이

고, 그 상황을 장악하고 있어서 시에서 “자기 자신을 느끼고 또 직시하는”(1133) 게 가능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렇게 할 때에야, 시인은 스스로에게 공고하게 묶인 주제적인 전부가 될 수 있다”(1133)며, 시가 곧 시인 “하나”의 것이고, 시인의 목소리가 곧 시의 목소리와 같다는 것이다.

헤겔 식의 서정시는 전통적인 서정시 담론과 궤를 같이한다. 고대 리라를 연주하며 부른 노래를 가리키던 용어에서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서정시는 그 정의에 있어서 다양한 변주 및 파생이 있어 왔으니 그 모든 역사를 다루는 것은 본 논문의 여력을 벗어날 것이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 루카이저를 통해 이해해보려는 서정시의 공간은 헤겔 식의 전통적인 서정시 논의보다 좀 더 현대적인 의미의 서정시 담론 공간에 속해 있다. 잭슨(Virginia Jackson)과 프린스(Yopie Prins)는 현대 비평의 장에서 장르로서 논의되고 있는 서정시가 “보통 낭만주의 시기에 기원을 두며”(2), “개인적 표현의 장르, 우리가 ”서정주체 나“라고 얘기할 때면 통용되는 그 감각”(2)이라 정의한다. 다소 모호한 정의지만, 그만큼 한 갈래로 정의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한데, 아우르는 문제 의식이 있다면 서정시를 발화하는 서정 주체의 문제가 서정시 담론의 주요한 쟁점이라는 것이다. 이 때, 낭만주의적 맥락이라는 것은 시에 대해서라면 아마도 가장 유명한 워즈워스(William Wordsworth)의 말, “시는 강렬한 감정의 자연스러운 범람이 되, 고요한 회상 속에서 우러나온다”(1447)와 관련이 있다. 헤겔의 서정시론과 관련시켜 요약하자면 이제까지 이해되어 온 서정시란 서정주체의 서정이 “고요한 회상 속에서” 탄생한다는 것, 즉 서정주체의 경험이 주체의 고독한 회상 속에서 가만히 정리된, 말하자면 개인의 정제된 감정이라는 점이었다.

하지만 루카이저의 모성경험은 그 “하나”의 목소리로는 온전히 세계를 노래할 수 없다고 판단하게 만들기에 기존 서정시 담론을 공공성과 맞닥뜨리는 변주를 불러온다는 점에서 현대적이다. 계속해서 질문해오는 타자로서의 아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답하는 어머니화자는 세상을 “하나”의 목소리로 노래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시인은 “하나”로부터 등을 돌려, 아이에게로 돌아서게 되고 그제야 “모든 것이 다시 세계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쓸 수 있다. 루카이저의 시에서 어머니화자는 자기 아이

에게로 돌아설 때에야, 그리하여 질문하는 아이에게 대답할 때에야 세상을 제대로 그릴 수 있는데 이러한 작업은 어쩌면 평생 계속되어야 하는 작업이다. 그 모든 과정에서 “아이가 계속해서 살아있고, 질문을 던지”며 어머니 화자는 반복적으로 그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사회에 참여하게 된다.

말하자면 어머니 화자는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뀌었을 뿐만 아니라 세계에 참여하는 삶의 방식마저 획득하게 되는 것이다. 내가 안다고 믿었던 “하나”의 세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기 때문에 어머니의 삶은 아이의 질문에 대한 답을 탐색하는 유동적인 장이 된다. 그러한 삶 속에서 기존의 피아 구분은 달라지기 마련이고 변화하고 또 변화하게 만드는 이러한 세계에서는 서정 주체 ‘나’(I) 역시도 계속해서 변화할 수밖에 없다. 관련하여 윌러스키(Shira Wolosky)는 루카이저의 시에 등장하는 서정 주체가 전통적으로 이해되어 온 서정 주체 ‘나’와 차이가 있다고 말한다.

루카이저의 자기성은 자아의 상호 재현적이고, 논쟁적이고, 구성적인 여러 부분들의 복합적인 교섭 가운데 그 역할이 드러나며 각 부분들은 구체적인 사회적, 정치적 역사들 속에 놓여 있다. (Wolosky 203)

즉, 어머니됨의 경험이 촉발시킨 새로운 관점은 동시대 예술사조였던 소위 하이모더니즘⁵⁾의 “자기-고립적이고, 자기-목적적이며, 공간화된 인공물”(Perloff 2)로써의 시와는 다른 시학을 추구한다. 시의 공간은 나라는 견고한 존재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곳이 아니라, 계속되는 “교섭” 속에서의 자기추구가 수행되는 장이다. 하이 모더니즘이 진지한 예술로 포용하지 않았던 평범한 것, 일반적인 것, 대중적인 것을 루카이저는 오히려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루카이저 시학의 서정 주체는 타인과의 교류 속에서 자아라는 경계를 변형시켜 점차 세계와 관계하는 참여의 일을 수행한다.

당대의 비평적 시류였던 신비평이 주창한 시의 이상성에 대해서도 루카이저는 반감을 표했다. 루카이저는 신비평이 정의한 “역사적 맥락이나 자전적 요소 및 문화적 틀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완성된 언어체로서, 형식적으로 잘 다듬어지고 상징적인 시”(Wolosky 202)를 “화석 시”(Life 167)라 불렀다. 그러한 시는 자아의 경계를 계속

해서 변형시키고, 다양한 교류 속에서 그 경계의 변화를 경험하는 서정의 장이 될 수 없기에 “화석”과도 같다는 것이다.⁶⁾ 그러므로 모더니즘의 기류 속에서 루카이저의 시를, 특히 서정 주체가 적극적으로 타인과 관계 맺고 제 변화를 도모하는 모성시를 읽는 일은 프레이저(Sir James George Frazer)가 『황금가지』(*The Golden Bough*, 1890)에서 언급한 바 있던 “수동적인-어머니의-생식력”(passive-mother-fertility, Hickman 59)에 대한 갈망과는 구조적으로 대치한다.⁷⁾ 루카이저의 모성시는 적극적으로 나의 변화를 도모하는 서정주체를 드러낸다.

어머니는 아이를 만난 이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매일같이 변화하는 타인으로서의 아이를 목도한다. 동시에 어머니는 스스로 변화해감을 증명하는 주체로도 존재한다. 이어서 보는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위한 아홉 편의 시」의 여섯 번째 소네트는 어머니됨의 서정이 어느 정도의 확장성을 내포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죽음의 위협! 오늘 나는 웃음을 알았다
 마치 난생 처음인 듯; 너의 눈도 바라보았다.
 죽음, 그 고요한 시선을 지나서, 내가 사랑하는 돌을 찾아냈다.
 하나는 웃음 터뜨리며 기쁘게 다가오는 너를 선택했다,
 그의 손에는 총이 가득하고, 스페인의 적들을 향하여.
 또 다른 하나는 삶이란 선택을 한 채로
 산 자의 매일을 살아있는 날들로 바꾸는 자.
 그 힘, 그 끈적함, 선택의 정신과 울분.

그들이 내게 와 물었다. “만약 선택해야 한다면,
 당신입니까, 아이입니까?” 웃음을 나 배웠지,
 그 순간에, 웃음과 생의 선택을.
 나는 물 위에서 거대한 배가 흔들리는 걸 보았지.
 손짓 하나에 들어 올려진. 한 아이를 나 보았어. 나는 보았어
 빨간 방울, 그 눈들을, 그 손들을, 그 손과 눈들을.

Death's threat!

Today I have known laughter

As if for the first time; have seen into your eyes,
 Death, past the still gaze, and found two I love.
 One chose you gladly with a laugh advancing,
 His hands full of guns, on the enemy in Spain.
 The other living with the choice of life
 Turning each day of living to the living day.
 The strength, the grossness, spirit and gall of choice.

They came to me and said, "If you must choose,
 Is it yourself or the child?" Laughter I learned
 In that moment, laughter and choice of life.
 I saw an immense ship trembling on the water
 Lift by a gesture of hands. I saw a child. I saw
 A red room, the eyes, the hands, the hands and eyes. (*Collected* 282)

형식상의 특징을 우선 살필 필요가 있다. 시의 제목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를 가리키고 있는 반면, 본문에는 아이와 눈을 마주쳤다는 만남이 기술되어있다. 그리고 그 만남이 화자의 사유를 이끄는 동기로 작동한다. 이러한 구성은 모성성이라는 것이 임신이나 출산의 여부가 아니라 타인을 제 삶과 만나게 하려는 여성 선택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는 문제의식과 연동되어 있다. 더불어 사건이 제시되는 옥타브와 그것이 해소되는 세스텟의 구조를 가진 페트라르카 소넷 전통과 연결시켜볼 때, 본 시에서는 병원에서 사건이 세스텟에서 제시되고 사건에 대한 화자의 심상이 옥타브에서 먼저 제시된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루카이저의 개인사를 염두에 둔다면, 당시 기혼 상태였던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했음을 깨닫고 미혼모로 살 것인가 결정해야 했던 사회적 가치판단에 의지해야 하는 사건보다도 아이와의 만남이 불러일으켰던 일련의 사유가 서정 주체로서 해소해야 할 더욱 무거운 사건이라는 뜻이기도 하다. 그리고 그것은 말끔한 해소나 해결로 마무리되지 않는다.

즉, 사건을 맞닥뜨린 뒤, 그것에 대한 해소나 해결로 귀결되던 전통적인 페트라르

카 소네트의 말하기로는 여성의 경험이 온전히 쓰일 수 없다는 문제의식을 형식으로 풀어낸 것이 본 시의 한 성취다. 관련해서 보이트(Benjamin Voigt)는 이 시가 여성 시인에 의해 여성의 경험을 풀어내는 장으로 쓰이면서 “역사적으로 남성주도의 형식이었던 소네트의 명상적 양태를 급진적으로 다른 결과물로 만들었다”고 부연하기도 했다. 말하자면 루카이저의 시는 여성의 경험이 여성 고유의 목소리로 발화될 때 형식상의 전복은 물론, 전통이 미처 담지 못했던 시의 확장성을 선보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런 식의 형식적 확장은 화자의 사유가 확장되는 일과 나란히 간다. 화자가 아이의 얼굴을 보곤 “오늘 나는 웃음을 알았다 / 마치 난생 처음인 듯”이라고 쓰는 것은 아이와의 만남이 자신의 알던 세계를 새롭게 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새로워진 세계를 조우한 화자의 사유는 5-7행에서 스페인 전쟁으로, 더불어 “산 자의 매일을 살아있는 날들로 바꾸는” 일에 대한 문제의식으로 순식간에 뻗어나간다. 한 아이를 만나는 일이 한 인간의 죽음을 생각하게 만들고, 그 사유가 무고한 사람들이 죽어나가던 20세기의 전쟁들로 확장되거나 혹은 살아있음을 더욱 더 생생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한 갈망으로 뻗어나가는 것이다. 그 결과, 10행에서 화자는 “당신입니까, 아이입니까?”라는, 누구도 대신해서 답해줄 수 없는 지극히 사적인 질문을 받게 되면서도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일이 답이 될 수 없다는 듯, 자신도 아이도 선택하지 않은 채 “나는 한 아이를 보았다”고만 쓴다. 나와 아이의 만남으로 생겨나는 세계에 대해 기술할 뿐이다. 루카이저가 본 소네트를 이렇게 마무리 짓는 것은 둘 중 하나의 생존을 선택하는 것이 비전으로 제시될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아이의 생존이 내 손에 달려 있다고 믿게 되는 상황에서 전쟁을 떠올리는 것은 저 밖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 안의 고민을 관계시키는 것이며, 누군가의 죽음이 다른 누군가의 생존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신념이 구축되는 과정이기도 하다.

자신이 공적인 사건들에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고, 이에 직접 참여하는 여성 주체의 경험과 목소리를 강하게 드러내는 면모는 루카이저 시학에서 “이 거대하고 전환적인 정치적 변화의 순간에 참여하고 있음에 고무되고 또 변화하는 ... 젊은 여성의 시적 각

성”(Kennedy-Epstein 390)을 보여준다. 단순히 정치적인 사건을 언급하거나 사건에의 참여를 촉구하는 프로파간다식의 작업이 아니라, 공적인 일에 참여하여 자신이 세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서정 주체의 감각을 그려내므로 근본적인 의미에서 서정시의 범주에 놓이는 것이다.

사적인 서사와 공적인 서사를 결합하는 커다란 문화적 역사들에 대해서 씬으로써 ... 전통적으로 여성적 서정시가 갖는 제한을 해제하고 여성을 역사적으로 배제해왔던 전통적인 남성적 장르를 새로 만든다. (Kennedy-Epstein 390-1)

즉, 루카이저 시학에서는 여성이기 때문에 제한되어 왔던 사회적, 시적 경계가 젓혀지고 그렇게 함으로써 여성을 배제해 온 세계를 내재화한 전통적 서정시를 “다시 만드”는 이중의 의의가 생겨난다. 한 개인이 역사의 현장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세계와 관계를 맺는 주체의 서정이 그려지는 루카이저의 시에서 서정 주체는 많은 경우 어머니화자로 설정되어 있고 이 어머니화자는 시의 면면에서 자신이 아이와 맺고 있는 관계를 인지하고, 이 반복적인 깨달음이 화자가 세계의 각 부분과 맺게 되는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리고 그 과정들이 시적 공간에 기입되면서 모성시를 구축한다.

3. 나가며

타인을 만나고, 기르고, 돌보는 역할을 해 본 사람에게서 구현되는, 흔적없이 존재하는 그 특유의 민감성은 “그들이 함께 일종의 이행적인 위치에 놓여 있어서, 떨어져 있을 때도 양털 같은 그물망이 그들을 잇고 있”(MC 28)기에 가능한 감각이다. 이 양상은 여성 누구에게나 태생적으로 모성애가 존재한다는 낯은 관념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간다. 살펴보았듯이 모성의 경험은 임신이 가능한 생물학적 여성이 열 달 동안 배태하고 나면 무조건적인 돌봄을 수행할 수 있다는 신화와 전혀 다르게 구성된다. 오히려 모성은 자신과 아이 사이에서 만들어진 관계를 인지하고 거기서 발생한 감각으로 세

계를 만지는 굉장히 발달적인, 그리고 실천적인 여성의 경험이다. 내 세계의 재구성에 타자가 필연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기 자신의 윤리적 실천과 관련이 있으면서도 결국 나와 세계의 관계가 끊임없이 상기되는 일인 것이다.

루카이저의 모성시에서 그 관계는 비단 자신과 아이에게만 한정되지 않는다. 시 「내 아들에게」(“For My Son”)에서 어머니화자는 자신의 아들이 “시인들로부터, 왕들로부터, 파산자들로부터, 설교자들로부터 / ... / 너는 왔단다”(Collected 429)라며 이 세계에 사는 수많은 존재들을 일일이 나열한다. 그 중엔 “창문 밖으로 더 먼 서쪽을 내다보는 서부의 어머니들”(Collected 429)도 있고, “충격적인 내용을 담은 신문”(Collected 429)도, 피아노를 가르치는 여인의 “굽은 손목”(Collected 429)도 있다. 세계를 구성하고 있는 이 무작위의 존재들로부터, 그리고 그들이 지닌 각기 다른 수많은 이야기들로부터 자신의 아들이 왔다고 말하는 어머니 화자는 시의 결말부에서 아이가 타인들과 함께 있기에 완전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사실 이 시는 아버지 없이 자란 루카이저의 아들에게 아버지의 부재를 위로하려던 것이 그 표면적인 의의였다. 하지만 화자는 모든 인간이 근원적 관계라 믿었던 ‘아버지의 아들’과 같은 상투적인 관계를 해체하고 매 순간 “우리의 빛 속의 / 어둠 속의 아버지, / 어디서나 아버지 역할을 하고 있는 / 남자를 발견할 때마다”(Collected 430) 새롭게 관계를 지어가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존재하게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아이의 보호자이자 안내자인 어머니는 어떻게 관계할지 모를 무수하게 열려있는 가능성 또한 맞닥뜨리게 된다. 그러므로 모성이란 단 한 번 관계를 맺음으로써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혹은 자신이 타자를 만날 때마다 새롭게 반응해야 하는 일종의 환경으로도 이해된다. “받아들이기, 반응하기, 반복하기”의 조건을 담지한 모성은 로즈가 “여성의 자율성에 대한 도전인 동시에 인간이 할 수 있는 한 가장 너르고, 통제 불가능한 지점에 닿을 기회이기도 하다”(Rose 132)고 정리한 것과 꼭 같다. 여성은 어머니가 됨으로써 자신의 자율성이 도전받는 불안정한 자리에 위치하게 되며, 그와 동시에 인간이 자신의 삶을 통제할 수 있다는 고착적인 의식 또한 재고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모성담론이 가장 잘 펼쳐질 수 있는 장으로써 루카이저는 시를 택했다. 「전선에 부치는 편지」(“Letter to the Front”)에서 루카이저는 “여지들과 시인들이 다가오는 진실을 본다. / 그러자 그것이 행위로 연출된다”(Collected 239)고 쓴 바 있다. 진실을 보는 사람으로서 여성이자 시인인 루카이저의 시적 화자는 한 여성이 아이라는 타인과 관계를 맺어 어머니라는 정체성을 스스로 세우고 그 경험 속에서 타인에게 말을 거는 방법을 서정시란 공간에서 수행하는 모성시학을 선보였다. 타인과 관계하는 지극히 사적인 경험이 공적 영역과 단단히 맞대어져 있어야 한다는 서정주체의 태도가 시인의 모성시학을 구성한 것이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매 순간 자아의 경계가 수정됨을 경험한 루카이저의 어머니화자들은 닫힌 서정시의 공간을 변형시키고 또 확대시키며 현대영미시사에서 내 부재하던 모성시의 흐름 또한 만들어낸 데 그의 의를 찾을 수 있다.

Notes

- 1) 루카이저는 스캇츠보로 사건(Scottsboro case)을 취재하고, 국제노동변호인단(International Labor Defense)의 일원으로 활동하며, 사코와 반제티(Sacco and Vanzetti)에 대해 쓰고, 미국 최악의 산업재해라 불린 허스 네스트 터널 재해(Hawk's Nest Tunnel disaster)을 다각도로 취재하기도 하는 등 인종차별과 인권 및 노동자 권리 수호를 위해 끊임없는 관심을 기울였고 이를 시로 풀어냈다.
- 2) 버그먼(David Bergman)은 그의 논문 「아얀타와 루카이저 분규사태」(“Ajanta and the Rukeyser Imbroglia”)에서 당시 공산주의의 정치적 입장을 대변했던 『파르티잔 리뷰』(Partisan Review)와 정치적 좌파를 지향했던 루카이저의 관계를 속속들이 짚으며 루카이저가 일종의 변절자로 내몰렸던 당시 상황을 회고한다. 버그먼은 인신공격에 가까웠던 당시의 분규사태가 루카이저의 이후 문단 활동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카이저가 스스로의 사회정치적, 예술적 입장을 추구하고자 고투했음을 주장하며 글을 마친다.
- 3) 이는 “보편적인 주체”(Keenaghan 189)가 존재한다고 믿었던 남성의 세계인식이 여성에게는 가능하지 않은 상상이고, 나아가 모더니즘이라는 예술 사조 속에서 여성이 만들어내고 또 인정받을 수 있는 시공간이 협소했다는 사실을 함의한다.
- 4) 『전체주의의 기원』(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에서 아렌트는 전체주의를 작동하게 하는 전체주의 자체의 원리가 그 어떤 인간의 의지나 힘을 합친 것보다 강하다고 말하면서 그것을 막을 수는 없어도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는 단 하나의 힘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

의 자유라고 말한다(Arendt 466). 따라서 전체주의적 입장에서 인간이 태어나는 일은 언제나 반-전체주의적 현상인 것이고 로즈는 아렌트의 이 말을 리치가 신생아를 인간의 가능성으로 확대해서 이해했던 맥락과 연관이 있다고 본다(Rose 79).

- 5) 카발로스키(Joshua Kavaloski)는 하이모더니즘이 이해되는 두 가지 갈래가 있다고 정리했는데, 한 가지는 “대중문화나 ‘저급한’ 것의 하찮음 및 평범성과 대조되는 진지한 예술의 고양된 특성을 강조하는 가치판단을 재현”(1-2)하는 예술이다. 또 다른 한 가지는 모더니즘을 시기적으로 분류하는 목적에 맞추어 “19세기에서 시작되어 제1차세계대전의 종전에 이르기까지의 초기 단계의 모더니즘 문학으로, 전쟁 이전의 아방가르드”(2) 운동들이 보여준 실험적 작품들과 구분되는, 주로 1920년대에 발표된 작품들이라 보았다. 본 논문에서 하이모더니즘은 첫 번째 맥락을 가리킨다.
- 6) 루카이지가 모더니즘 및 신비평의 입장과 맺는 관계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본 논문의 주요한 몫은 아니나 본 논문은 현대미국시사에서 통용되는 모더니즘 시기의 시적 전통이 루카이지 및 다른 여성시인들을 통해 어떻게 확장되었어야 했을지를 가늠해보려는 시도이기도 하다.
- 7) 비단 모더니즘 시기의 작품들 뿐만 아니라 많은 문학작품들이 어머니의 목소리를 소거한 채로 맹목적인 대상화를 진행해왔다. 이에 반하여 어머니 자신의 목소리를 지니고 스스로 그려내는 어머니됨에 대해 쓴 작품들을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논문을 관통하는 시도이다.

인 용 문 헌

- Arendt, Hannah.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1951. A Harvest Book, 1979.
- Barnat, Dara. ““Women and poets see the truth arrive”: Muriel Rukeyser and Walt Whitman.” *Studies in American Jewish Literature*, vol. 34, no. 1, 2015, pp. 94-116.
- Bergman, David. “Ajanta and the Rukeyser *Imbroglia*.” *American Literary History*, vol. 22, no. 3, 2010, pp. 553-83.
- Gander, Catherine. “Poetry as embodied experience: the pragmatist aesthetics of Muriel Rukeyser’s *The Life of Poetry*.” *Textual Practice*, vol. 32, no. 7, pp. 1205-29.
- Hegel, G. W. F. “Lyric Poetry.” *Aesthetics: Lectures on Fine Arts*. Translated by T. M. Knox, vol. 2, Oxford UP, 1975, pp. 1111-57.
- Heim, Stefania. “Muriel Rukeyser’s experimental feminine poetics of war.” *Textual Practice*, vol. 32, no. 7, 2018, pp. 1127-48.
- Herzog, Anne. ““Anything Away from Anything”: Muriel Rukeyser’s Relational Poetics.” *How Shall We Tell Each Other of the Poet?*, edited by Anne Herzog and Janet Kaufman, Palgrave, 2001, pp. 32-44.
- Hickman, Ben. ““Atlantis Buried Outside”: Muriel Rukeyser, Myth, and the Crises of War.” *Criticism*, vol 57, no. 4, 2015, pp. 631-57.
- Jackson, Virginia and Yopie Prins, editors. *The Lyric Theory Reader: A Critical Anthology*. Johns Hopkins UP, 2014.
- Kavaloski, Joshua. *High Modernism: Aestheticism and Performativity in Literature of the 1920s*. Camden House, 2014.
- Keenaghan, Eric. “There is no glass woman: Muriel Rukeyser’s lost feminist essay “Many Keys”.” *Feminist Modernist Studies*, vol. 1, no. 1-2, 2018, pp.

186-204.

- Kennedy-Epstein, Rowena. "'Bad influence' and 'willful subjects': the gender politics of *The Life of Poetry*." *Textual Practice*, vol. 32, no. 7, 2018, pp. 1149-64.
- Ostriker, Alicia. "Rich's *Essential Essays*." *Tikkun*, vol. 33, no. 4, 2018, pp. 71-5.
- Perloff, Marjorie. "The Two Ariels: The (Re)Making of the Sylvia Plath Canon." *Poetic License: Essays on Modernist and Postmodernist Lyric*, Northwestern UP, 1990, pp.175-98
- Rose, Jacqueline. *Mothers: An Essay on Love and Cruelty*. Farrar, Straus and Giroux, 2018. [로즈, 재클린. 『승배와 혐오』. 김영아 역. 창비, 2020]
- Rudnitsky, Lexi. "Planes, Politics, and Protofeminist Poetics: Muriel Rukeyser's "Theory of Flight" and "The Middle of the Air"."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vol. 27, no. 2, 2008, pp. 237-57.
- Rukeyser, Muriel. *The Collected Poems of Muriel Rukeyser*. U of Pittsburgh P, 2006. _____. *The Life of Poetry*. 1949. Paris Press, 1996.
- Voigt, Benjamin. "Muriel Rukeyser 101: Tracing the remarkable work of a feminist pioneer." *Poetry Foundation*, 16 Mar. 2017, <https://www.poetryfoundation.org/articles/92637/muriel-rukeyser-101>. Accessed 16 Oct, 2020.
- Wolosky, Shira. "What Do Jews Stand For? Muriel Rukeyser's Ethic of Identity." *Nashim: A Journal of Jewish Women's Studies & Gender Issues*, no. 19, 2010, pp. 199-226.
- Wordsworth, William. "Preface to *Lyrical Ballads, with Pastoral and Other Poems*." *The Norton Anthology: English Literature*, edited by M. H. Abrams et al., 7th ed, 2001, pp. 1436-48.

Abstract

**Muriel Rukeyser's Motherhood Poetry:
Lyric Poetry and Publicness**

Seonah Park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This paper attempts to redefine motherhood as a female experience through the motherhood poetry of a modernist American poet, Muriel Rukeyser. In contemporary terms, motherhood tends to be defined as a feminine experience in which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and child is created, whereas Rukeyser's motherhood poetry emphasizes the intersection of such motherhood with the public values of society and the expansiveness of lyric poetry. Living in a time of upheaval and chaos in the war-driven world order, Rukeyser needed to keep a keen eye on the world as the space in which she and her child lived and would live, and thus it was inevitable for her to discuss motherhood in public discourse. Thus, the environment of motherhood brought about an ongoing search for her own place in the public sphere, and if this search can be seen as self-creative in nature, then motherhood poetry, which poetizes this search can be understood as a work that poetizes ongoing social participation. Through a reading of Rukeyser's work that expands the lyrical subject of the poems from the self to the public space, this paper examines how the individual specificity of the maternal experience expands into the universal experience of women and what that means for our reading of the poems today.

Key Words: Lyric poetry, Publicness, Muriel Rukeyser, Motherhood Poetry, Motherhood

논문접수일: 2023.05.30

심사완료일: 2023.06.11

게재확정일: 2023.06.11

이름: 박선아

소속: 한국외국어대학교 영미연구소 책임연구원

이메일: holicsun@naver.com

